

(짧)러시아 혁명당시 녹군(사회혁명당좌익)과 아나키즘의 차이점

심장중의강철

아마 러시아 혁명사를 '사상'이 아니라 '역사'로써 접한 이들에게 꽤나 헛갈리는 것들이 있을겁니다. 특히 '녹군'[1] 그 중 '사회혁명당 좌익'세력과 아나키즘의 차이점을 말입니다. 개중에서는 아예 둘을 '동일시'하는 이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둘이 꽤나 다른 세력이며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보겠습니다.

나로드니키(인민주의), 사회혁명당 좌익을 담당한 이들이 누군가?



사회혁명당의 사진

나로드니키라고 읽혀지는 인민주의. 우리쪽에서는 '브나로드 운동'의 원류로 알려진 이 사상은 19세기에 나타난 '니힐라즘'과 '아나키즘'의 '영향'을 받은 일종의 '운동'적 사상입니다. (아나키즘또한 허무주의와 여러모로 연관점이 있기에 그 둘의 영향을 받은 인민주의가 아나키즘과 유사해보이는 건 어쩔 수 없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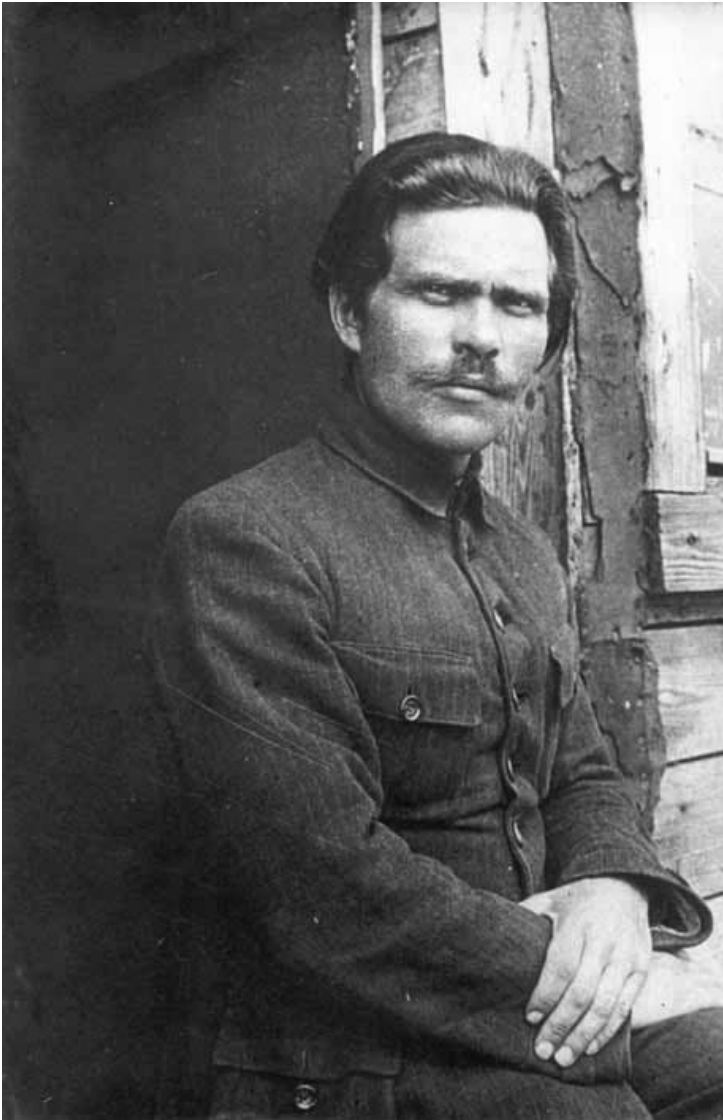
이들은 당시 차르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과 농민의 대한 계몽성을 주장했으며 농촌 속으로 들어가 계몽운동을 실시했습니다. 당대 아나키스트였던 바쿠닌과 그 후대인 크로포트킨과 이러한 '농촌계몽 운동'에 관심을 느끼고 참가했었조.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농촌의 두터운 차르에 대한 믿음을 끄끌내 끌어내지 못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니힐라즘에 경도되어 테러를 통한 혁명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후 맑시즘등의 부상으로 인해 후퇴한 잔당들이 나중에 다시금 세력을 결합하여 세운 것이 바로

이 '나로드니키 성향의 정당'인 사회혁명당입니다.

사회혁명당은 미르(러시아 농민 공동체)의 발전을 통한 공산주의 혁명 달성(즉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을 부정), 자본주의를 악으로 규정, 그리고 러시아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없어도 혁명이 가능함, 투쟁의 주 수단은 테러. 등을 규정하던 단체로써 당시 볼셰비키와 큰 다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흑군을 담당하던 우크라이나 자유지구와 아나키즘



우크라이나 자유지구 일원이던 마흐노

아나키즘은 이에 반해서 '흑군'이라는 세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대부분을 장악할 정도의 이들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마흐노의 강령주의에 입각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당시 볼셰비키의 '아나키즘 탄압'과 '소비에트 민주제 실현의 미비'[2]

에 불만을 품은 아나키스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아나키즘의 이상에 따라서 '공동체들의 자유사회, 공동체 자율결정권, 반권위적 사회, 강령주장, 반 자본주의 등'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꽤나 나로드니키와 유사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꽤나 있었는데.

아나키즘은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을 중시했으며 '투쟁'의 주 방식으로 '조직을 이용한 총투쟁'을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로

드니키는 국가의 해체에 대해서는 크게 손을 대지 않았지만 아나키즘은 국가또한 자본주의를 통한 억압의 총본산이라고 주장하며 해체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정치권력을 위해 정당을 만들었던 나로드니키와 다르게 정당또한 부정한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1. 데니킨(의용)군이 선포한 모든 법령은 철폐한다. 노동자 농민의 이익에 반하는 공산당 권위의 법령 또한 마찬가지로 철폐한다.
주의 : 공산당의 법령 중 무엇이 노동자들에게 해로운지는 마을, 공장, 상점 등의 총회에서 노동자 스스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신사제급, 교회 등 노동자의 적들에 대한 토지와 그 가축, 장비 등은 스스로의 노동으로만 살아가는 농민들에게로 이관되어야 한다. 이 이관은 조직된 방식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고, 농민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의 이익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당한 노동대중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공장, 작업장, 광산 등 모든 생산수단은 노동계급이 총체적으로 소유하여야 한다. 이 소유는 노동조합이 모든 사업체를 스스로 통제하고, 생산을 재개하며, 우크라이나 전체의 산업을 하나의 단결한 조직으로 묶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모든 노동자와 농민의 조직이 노동자와 농민의 자유 소비에트를 건설하기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이 소비에트는 경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만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 단체의 대표자들은 노동자 농민의 소비에트에 참석할 수 없다. 이들이 소비에트에 참여한다면 소비에트는 결국 당 간부의 소비에트가 될 것이고, 소비에트 질서의 붕괴를 낳을 것이다.
5. 체카, 당위원회, 혹은 이와 유사하게 폭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규율적인 기구의 존재를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6. 발언,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는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 자유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반혁명적이다.
7. 지금 이 순간부터 국가자경단, 경찰, 군대를 철폐한다. 그들의 자리는 인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자기방위부대가 차지할 것이다. 자기방위는 오직 노동자와 농민에 의하여 조직되어야 한다.
8. 노동자와 농민의 소비에트, 노동자와 농민의 자기방위부대, 그리고 모든 개별적 노동자 농민들은 부르주아지나 장교들이 행해온 반혁명적 징후를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약탈도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반혁명적 행동이나 약탈이 적발된 자는 그 즉시 총살한다.
9. 소련과 우크라이나 화폐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화폐를 통한 지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자는 혁명재판에 소환한다.
10. 노동자 농민의 조직이 이를 접수할 때까지, 상품과 생산물의 교환은 자유롭게 유지한다. 하지만 동시에 상품의 교환은 생산자들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11. 이 선언문을 나누어주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개인은 반혁명분자라 취급한다.

우크라이나의 모든 농부와 노동자들에게 - 네스토로 마흐노

<https://kr.theanarchistlibrary.org/library/neseutoreu-maheuno-ukeurainayi-modeun-nongbuwa-nodongiadeulege>

[1]당시 볼셰비키의 의회해산 사건 당시 반-볼셰비키적 좌파 세력을 아우르던 말. 사실 청,흑,백,적군을 빼고 남은 잔당들을 모두 부르는 말이지만 보통은 전자를 이른다.

[2]아나키스트들은 혁명의 시작에서 볼셰비키와 같이했고 그 이후에도 의회해산때 '부르주아 민주제 해체'를 주장하며 옹호했지만 정작 레닌은 아나키즘적 연방사회가 아닌 볼셰비키적 중앙집권사회를 주장했기에 아나키스트들이 실망하고 떠나 사례가 있습니다.